

# 새로운 각오 새로운 시대

朴利道

시인·경희대 국문과 교수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국민, 그 국가는 흥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최근 어떤 책을 읽어야 그같은 주장에 갇힐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독서에 관한 몇가지 통계를 보면서 느낀 것이다.

그 하나는 지난 상반기에 서울 시내 대형서점에서 집계한 베스트셀러 시집 열린 가운데 무명시인의 시집이 7,8권을 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무명시인이란 고등학교 학생들의 낙서 모음, 혹은 그에 가까운 감상주의에 탐닉한 시들, 그것도 아니면 선정적이거나 청소년 또래의 은어 모음에 해당하는 시집들이 태반이라고 한다. 여기에 출판업자들이 부추김이 크게 한몫을 했음엔 틀림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독자 중 상당한 수가 현재 한국시단의 평균치 이하의 시들을 즐겨 읽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케 되는 것이다.

산업사회로의 길이 터진 오늘의 현실에선 많이 읽히는 문학, 즉 많이 팔리는 책이 장땡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 읽고 팔리는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자체평가를 게을리 해서 안 된다. 출판계엔 양서뿐만이 아니라 악서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문제의식을 갖고 걱정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출판인이나 지식인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독서도 일회성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찰나주의적인 독서경향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다시 생각할 수 있거나 지식의 창고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어떤 독서층에게 계몽하는 일이 필요하다.

일찍이 피히테는 “국가가 국민에 의해 형성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이 국어(자기 나라 말)에 의해 형성된다. 순수한 국어를 쓰는 민족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이다. 그렇지 못한 민족은 지식인이 분열되고 노예근성을 지니게 된다”고 지직한 적이 있다.

여기 인용한 피히테의 말에 우리는 한번 고무되고 한번은 좌절하게 된다. 우리 말과 글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자신감이요 희망이다. 그러나 국어를 갖지 못한 민족이 분열과 노예근성을 지니게 된다는 구절에선 마음속에 찢림이 있다. 그것은 우리는 국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분열과 노예근성이 지식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씩스레한 여운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독서의 양을 강조하면서도 그 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 통계는 우리나라의 도서출판량이 세계 4위권에 들었다는 반가운 얘기이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그 통계기사가 뒤엔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도서들이 1면당 誤字나 집필자의 잘못된 것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계숫자로 보여주고 있다.

글쓰기를 업으로 하고 있는 필자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필자들과 출판인 내지 출판업자들 모두가 꾀름으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

맞춤법, 띄어쓰기, 한자어와 외래어, 각종 부호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장인의 식이 심어져야 한다. 또 출판인들도 완벽주의로 제작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양쪽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가 설 때 우리의 독서계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다시 충고하는 것은 패부적이고 찰나적인 독서행위자들에게 보다 나은 독서 점진적인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일에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계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뉴스 2 성대한 책의 잔치 '91서울도서전'·외

### 특집 지방화시대의 지역 책문화

4 책문화의 최일선 매신저 인턴 이동도서관

5 반촌문화의 곳곳한 자존심 안동 世傳漢籍

6 옛 명성 부활 꿈꾸는 부산지역 서적도매상

7 박물관까지 건립한 족보출판사 대전 '회상사'

8 운동으로서의 집중력과 치열성, '광주출판'

9 농촌 책문화의 안스러운 靑光 정읍 새마을문고

10 독서 생활화 실천운동 펴는 청주의 '의사독서운동가'

11 책선물운동 펼치는 별난 공무원 서울은평구청장

12 도서관부지서 시가 13억 땅 기증한 재전 할머니

13 관동지방 연구·저술가집단 춘천 '한림과학원'

서평 14 이현희 「광복전후사의 재인식」 — 이연복

한국역사연구회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 서광일

15 고영복 편 「현대사회문제」 — 임희섭

농어촌사회연 「한국농업의 위기와 재편방향」 — 박광서

16 이상일 「굿, 그 황홀한 연극」 — 이두현

김태현 「그리움의 비평」 — 윤지관

17 하창수 「지금부터 시작인 이야기」 — 하응백

이 선 「행춘아파트」 — 김종희

시론 18 통계 속에 숨어있는 한국출판의 허구 — 이중한

「91출판연감」을 보며 느낀 몇가지 문제와 개선방안

문화화제 20 올 노벨문학상 수상자 나딘 고디머의 문학

출판화제 21 올바른 국어생활 위한 실용적 지침서

리포트 22 한·일 대학출판부협회 제10차 세미나 — 이광래

컬러화보 24 이 殷盛한 한비탕 책의 축제 — 오애리

'91서울도서전 참관기

해외출판 26 유럽 서점가의 새로운 중심 브뤼셀 — 이희재

세계의 책 28 냉전시대의 두 주역 케네디와 흐루시초프·외

30 독자서평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 이야기/정기구독 안내

표지사진/김흥진